

종합

민주당 本家 광주·전남 손학규계 장악

■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 의미

당내 입지 강화 이낙연 의원 4선 가도 '청신호'

민주당 10·3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반전으로 접어들어 민주당 위원장 선거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을 손 전 대표 지지 인사들이 '싸움'이 하면서 광주·전남에서 손 전 대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7일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3선의 이낙연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지난 11일 정세균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강기정 의원과 맞붙었던 김재권 위원장도 손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낙연 위원장의 경우 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손 전 대표의 전남지역 책임자를 맡기로 할 정도로 손 대표 지지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8명의 전대 후보 측의 평가와 신임 시·도당 위원장의 입장을 종합, 분석해볼 때 이날 현재까지 개편대회를 마친 12곳 중 5곳은 손 고문을 비롯한 비주류 지지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 외에 경남(백두현), 충남(양

승조), 대구(김희섭)도 손 전 대표 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양승조 위원장은 손 고문을 공개 지지한 현역 재선 의원이며 백두현, 김희섭 위원장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손 고문을 지지했던 인사다.

정 전 대표도 비주류 '연합군'에 맞서 부산(최인호), 울산(임동호), 경북(허대만)을 지지하는 등 저력을 보였다.

제주(김재운), 대전(박범계), 강원(최종원), 충북(오제세)은 중립을 표방했다.

당내에서는 이런 결과를 놓고 조직기반을 감안할 때 손 고문이 의외로 약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로 인해 향후 입지는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전 의원과 국전 의원을 전폭 지원한 이석형 전 군수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기 총선에 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초 도당위원장 선출은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해 합의 추대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뒤늦게 국 전 의원이 경선에 뛰어 들었고, 그 뒤에는 차기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

는 이 전 군수가 버티고 있어 이번 도당위원장 경선이 사실상 차기 총선 대리전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 전 군수의 경우 이 의원의 지역구(한평·영광·장성)와 겹치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 국 전 의원이 이 의원을 눌러 줄 경우 차기 총선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3선 의원인 이 의원의 '4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고, 이 전 군수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당정협조 활성화 지역역점 사업 적극 지원”

이낙연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낙연 신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17일 “진정한 당내 통합을 통해 전남도당이 2012년 정권탈환의 초석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중앙당과 전남의 통로가 되고, 전남 각 지역의 의견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당내 통합을 위해 모든 동료 의원들과 협의·협력하고, 전남도당을 전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도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작책 당비의 30%를 지역위원회에 환원하고 있는 것

을 향후 50%까지 돌려 주고, 지역위원회에 젊은 세대를 많이 보강해 후계세대 육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치인과 정치 지망생들이 지역의 미래 개척을 위한 정책을 공부하고 논의를 기회를 많이 만들어 정책 역량 강화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도당 자원기부 성격을 갖는 정책연구모임을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당정협조를 더욱 활성화해 당장 눈앞에 닥친 F1대회와 여수 엑스포를 비롯한 전남도의 역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대권주자 “내가 적임”

민주당 10·3 전당대회 주자들이 17일 전남 공략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화순 하니문화센터에서 열린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 경연발표를 통해 저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할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표심잡기를 시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9·30일 ‘김황식 인사청문회’

여야는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29, 30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달 1일 인사청문회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를 처리하는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임명동의

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근형,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진행안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4선인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는 38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성실성을 인정받아 공직사회에 귀감이 된 것은 물론 국민 신망도 동시에 받고 있어 공정한 사회를 통해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설

火葬場 부족해 화장 못한다니 말이 되나

(화장장)

화장(火葬)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보수성이 강한 광주·전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화장률은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상승률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화장률이 65.0%나 되지만 광주는 57.3%에 불과하고, 전남은 44.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44.5%)에 이어 15위다.

그러나 광주는 지난 2008년 53.0%에 비해 4.3%, 전남은 39.4%에서 5.2%가 각각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의 장례문화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화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화장장은 확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선 화장시설 6곳, 화장로 20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광주 영락공원과 종교시설

화장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포화상태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락공원의 경우 하루 평균 20건으로 아직은 수용 능력 24건에 미치지 못하지만 화장의 급증 추세로 볼 때 금방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지역은 화장시설이 대부분 장례를 연기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화장장 확충이 안 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 반대가 심한 데다 각종 규제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지역과 주민들에게 과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주민들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역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리·완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화장장이 없어 다시금 국도가 파헤쳐진다면 이야말로 퇴보가 아닌가.

목포 ‘마담 노트’ 실상 철저히 규명해야

목포시가 한 톨살롱 마담의 고객 관리 비밀장부로 발각 뒤집혔다고 한다. 이 장부에 적혀 있는 400여 명이 경찰에 줄줄이 소환돼 성매매 여부를 조사받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경찰은 지난 6월 목포의 모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장부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노트에는 400여 명의 이름과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성매매 고객은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었다. 현재 경찰이 관련자 가운데 200여 명을 불러 성매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50여 명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더 진행되면 향후와 성접대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오래 갈 것 같다. 목포 지역사회가 마치 그릇된 향응문화의 온상인 양 비쳐진 것도 몹시 심각한 피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막사술’ 같은 접대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작부와 관련해 고급주점에서 향응 접대를 받은 자체만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도 부족해 속칭 ‘2차’까지 나갔더니 할 말을 잃게 한다. 만약 이들이 성매매수까지 했다면 파렴치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이들 간에 은밀한 ‘뒷돈 거래’는 없었는지 의문이다.

경찰은 ‘마담 노트’의 실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는 의법조치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하루 살기도 힘겨운 판에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하룻밤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접대를 받고 부도덕한 짓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공직·기업사회의 윤리수준이 부끄러울 뿐이다.

농진청 ‘탑프루트’ ‘으뜸과채’ 평가회

순천 복숭아·곡성 멜론 최고 명품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최고품질 ‘탑프루트’ ‘으뜸과채’ 생산평가회에서 순천 복숭아와 곡성 멜론이 최고 명품으로 선정됐다.

17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순천 복숭아와 곡성 멜론은 외관심사와 계측검사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과일 크기와 당도, 착색도, 모양, 균일도, 식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의 이번 품질평가에는 전

국에서 멜론, 복숭아, 사과, 포도 등 4개 품종 85점이 출품돼 유통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최고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지속적인 농가별 경영진단과 토양관리, 착색도 증진 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들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신안군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1121억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태풍 ‘곤파스’로 극심한 피해를 본 신안군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은 신안군을 비롯해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이다.

이들 지역은 태풍으로 118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복구비로 국고 831억원과 지방비 290억원 등 1121억원이 지원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자체 지방채 발행 급증

장흥 107억·곡성 97억원

10곳은 500% 이상 늘어

지난해 지방채 발행잔액이 전년도보다 500% 이상 급증한 기초자치단체가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상(한나라당) 의원은 17일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30개 기초단체 중 지방채 발행잔액이 500% 넘게 늘어난 기초단체는 전남 하동, 인천 강화 등 10곳이었다”고 말했다.

1000% 이상 늘어난 곳은 ▲경남 하동 5700.0%(2008년 3억원→2009년 174억원) ▲인천 강화 4066.7%(3억원→125억원) ▲전남 장흥 2575.0%(4억원→107억원) ▲곡성 1840.0%(5억원→97억원) ▲대전 중구 1533.3%(6억원→98억원) 등 5곳이었다.

100% 이상 500% 미만 단체는 강원 삼척(402.4%), 대전 대덕(328.6%) 등 24곳이었다.

또 230개 기초단체 중 190개 단체가 7조 8431억원 규모의 지방채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액은 412억원이었다.

구 의원은 “기초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데다 최근 복지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재정 여력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며 “지방채가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상무 박세창씨

금호터미널 전무에 김현철씨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인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35)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가 금호타이어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7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금호타이어 등 각 계열사 일부 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말 그룹 주요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임원인사를 하지 않아 발생했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부사장 1명, 전무 5명, 상무 22명, 상무보 13명 등 총 41명이 승진했다.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에 박현욱씨가 승진 발령됐고, 김현철 금호터미널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투자협력관

코트라 유호상씨 위촉



광주시는 17일 “해외분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인 코트라(KOTRA) 소속 유호상 처장을 투자협력관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유호상(53) 투자협력관은 광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취득 후 1990년 코트라에 입사해 그동안 투자유치 관련 업무와 해외무역관장 등을 두루 거친 해외분야 투자유치 전문가다.

투자협력관은 해외분야의 투자유치분야를 자문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분야의 투자유치 주요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교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